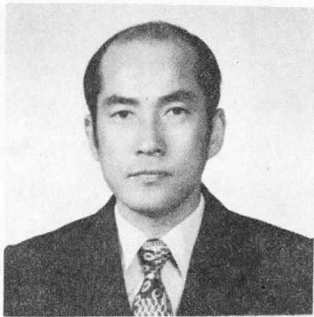


알 림

“ 돼지에게도 에어컨을 ”



윤 회 진 (대월종돈장 대표)

지난 1월호부터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게재된 「윤회진 사양칼럼」이 6월호로 마감되고 7월호부터는 윤덕영씨(덕영종돈장 대표)가 사양칼럼란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윤회진 사양칼럼」이 게재되는 동안 많은 독자들로부터 내용에 대한 찬사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해 「윤회진 사양칼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윤회진 사양칼럼」은 월간양돈의 발자취에 길이 남을 것이며 독자들의 사양관리 향상에 도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난을 집필해 주신 윤회진 선생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월간양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여름은 신나는 계절이다.

높은 산과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고 모두들 바캉스를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돼지는 어떠한가? 휴가가 있을리 없고 무더위와 모기·파리 등쌀에 식욕은 떨어지고 물만 들이킨다.

그 듯한 몸집에 체온을 발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숨을 빨리 내쉬는 일이다. 기온이 28℃쯤까지는 돼지에게 별 영향은 없고 호흡·맥박·체온도 큰 변화가 없으나, 30℃를 넘어서면 숨차하는 증상이 보이고 그 이상이 되면 특히 성돈에 있어서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는 체중이나 암·수, 품종에 따라 다르고 스톨사육이나, 군사나, 방목이나에 따라 모두 다르다. 추위때도 마찬가지이지

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방목이나 군사에 비하여 꿈쩍 못하는 스톨사육쪽이 더위도 더 타게 된다.

또 유색종은 백색종에 비하여 내서성이 약한 것 같다. 일본에서 동남아쪽으로 종돈수송할 때에 유색종의 사고율이 높다고 하며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종돈 한 비행기에서 죽은 다섯마리가 모두 유색종 숫놈이었다.

열을 흡수하는데 용이하단든지 그 외에 무슨 요인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농장은 아무래도 백색 숫놈보다는 유색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사용빈도도 유색종이 많은 편이다. 가능하면 여름에는 숫놈을 약간 여유있게 확보하여 다소 교배횟수를 줄여

주는 것이 좋으며, 어차피 여름을 지내고 나면 정액량이 줄어든다든지 도태할 놈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수돼지는 너무 안싸도 무디어진다. 예를 들면 분만이 적은 달은 산자수도 떨어지고 많이 분만하는 달엔 산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7~8월이 되면 정액상태가 나빠지고 승가육도 떨어지는데 이런 면에서는 하이브리드 수돼지가 대단히 활력이 좋고 사용에 적합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순종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두고 개량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약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열사병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시원하게 해 주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또 여름에는 사료섭취량이 줄어 칼로리가 부족하게 되므로 사료의 영양수준을 높여 주어야지 양으로 카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의 사이다마 종축목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루 계란 2~3개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더위가 30°C를 넘어서면 1~2°C 차이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교배후 30일 이내의 무더위에서는 배사망울이 증가하여 산자수를 떨어뜨리게 된다. 32°C와 15.5°C에서 임신 25일경 생존배수를 비교한 결과 3.2개나 적었다고 한다. 그 후의 임신돈에서는 피해가 덜한 편이다.

매년 11~12월에 산자수와 생시체중이 떨어지고 허약 자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7~8월에 교배한 것들이고, 8~9월에는 발정재귀가 불량하여 평균 2일정도 지연된다고 한다. 또 일교차가 큰 9~10월에 걸쳐 재발돈이 많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더위보다도 온도차가 13°C 이상되면 돼지에 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하며 냉하(冷夏)에 오히려 성적이 나쁜 것은 사람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 균형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반면에 다만 돼지가 긴 더위에 별탈없이 적응하는 것은 더위에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름대책으로는 그늘·바람·샤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돈사열에 녹음수를 심어주고 수돼지 운동장에는 햇볕이 돈방에 들어오지 않게 최소 2m쯤 차양시설을 해준다. 단열재는 두께를 최소 50% 이상으로 하되 쥐 피해를 막고 방습이 되어야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붕에 단열재 시공이 안 되었을 경우 지붕 밑의 온도는 약 70°C까지도 올라가며 지붕 위에 물을 뿌려 실온을 2~3°C 가량 낮출 수 있다.

송풍덕트는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만실이나 스톨의 어미돼지 머리위 1m에서 초속 1m정도의 바람을 보내면 좋다. 50m 돈사라면 1라인에 대개 15만원 정도의 시설비와 1/2HP의 전기료가 든다. 운동장에 수욕장을 만드는 것은 돼지의 습성상 여기에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일거리가 많게 된다.

그보다는 번식돈이나 비육돈사내에 안개 모양의 물을 주면 체표면이 젖어 증발하여 체감온도를 낮추게 된다.

3m 간격의 노즐 개당 약 2,500원과 가압(加圧)모터 및 배관비가 소요된다. (노즐은 개스용 품상에서 구입할 수 있고 최근에는 외국 기자재를 수입·시공하는 회사도 있다)

이유모돈은 운동장에서 샤워시켜 줌으로서 발

정 재귀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무창돈사에서는 자동차 라지에이터와 비슷한 「Kool-cel pad」를 사용하여 물을 흘림으로서 기화열(540cal/g)을 이용하여 사내온도를 6~8℃까지 낮출 수 있다.(외기온 37℃일때 사내는 29℃ 정도, 지하수를 이용하면 더 낮출 수도 있다.)

정확치는 않지만 60평(분만실 24방 상당)에 설치하려면 110만원이 들고 소량씩 수입할 수 없는 것이 흠이다.

요즘 분만사나 자돈사에는 시설투자를 많이 하면서도 큰돼지에게 소홀한 경향이 있으나 적은 투자로서 번식성적을 올리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자기 농장의 성적을

매년 일정한 방법으로 집계하여 전년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없을까 하고 연구하는 자세이다.

나는 돼지가 혁혁대는 것을 보고서야 여름이 다 지날때쯤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곤 한 경험이 있다.

온도에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서두르자. 돼지에게 에어컨은 못 틀어주더라도 돼지니까 해줄 수 있는 피서법은 많다.

〈지난 6개월간 이 사양칼럼을 맡아 ① 겨울철 증량급이 ② 이유자돈의 환경관리 ③ 종돈자가생산의 경제성 ④ 일본의 계통조성 ⑤ 후보돈 관리 ⑥ 성돈의 여름철 대책으로 나누어 쓰는동안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문 종돈장



130일→90kg, 등지방 1.5cm라면!

우리는 수입원종돈만을 생산하는 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엄격한 자체선발을 거쳐 자랑스러운 돼지만 판매합니다.

정원 종돈장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산1-115번지

분양사무실: 동물약품 정약원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25-7번지 ☎ 32-1250

대표: 수의사 김 태 현